

「밀과 가라지」  
김만용 프란치스코 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https://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 제1독서 | 지혜서12,13.16-19



(후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화답송**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로마서 8,26-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 마태오 13,24-43

**성가** | 입당성가 [19]

예물준비 [216]

영성체 [154]

파견성가 [6]

## 미사 봉헌

### 연미사

김세영 야고보, 남정희 아녜스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박현진 스테파노  
문영현 요셉

### 봉헌

이은경 헬렌  
주현경 바울라  
민완준, 민덕미  
문홍빈 안셀모

### 생미사

김은성 피터  
민사룡 가브리엘  
민정신 아폴로니아  
한미영 안나 영명축일  
유재선 율리안나 건강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 봉헌

가족  
민덕미 안젤라  
가족(민재인)  
박울리바  
황지윤 아녜스  
김영희 클라라  
김영희 클라라  
김기레 레지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나눔의 바자회(5/21) 결산**

Description	Amount
성당 지원 (2022 이월)	\$6,004
성당 행사	\$10,224
Donation	\$6,245
Sponsorship	\$2,700
Ticket 판매	\$5,430
<b>Total Revenue</b>	<b>\$30,603</b>
<b>바자회 비용</b>	<b>\$14,545</b>
<b>Income</b>	<b>\$16,058</b>

**2023년 바자회 수익분배**

2024년 바자회 이월금	\$4,058
지하창고 수리 (선반 설치)	\$4,000
본 성당에게 기부금으로 전달	\$8,000

**▶제27차 2023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예수님께서 성경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일시: 7/22(토) 9am-7pm, 7/23(주일) 9pm-5pm  
장소: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토리움4 참가비: \$35(양일간  
점심과 간식제공) 문의: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요셉회, 성모회 야외행사**

7/30(주일) NJ/Tallman Mountain State Park  
신청: 강안드레아 516-521-3113 김테클라 646-789-1433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8/27(주일), 11시, 다미안홀

**▶청년회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날짜: 8/25-27(2박3일) 장소: Lebanon, NJ  
참가비: 7월 신청: \$200, 8월 신청: \$220  
문의: 청년회장 양젼마 kakao ID: Jcy258

**▶청년회 비즈세일**

지난 바자회 핫템이었던 비즈세일 오늘 컴백합니다.  
장소: 미사후 친교실. 품목: 목주팔찌, 반지, 핸드폰줄 판매.  
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한 이벤트로 모든 수익의 10%는 교무  
금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1(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포담대학교 ELS수업에 초대합니다.-영어, 컴퓨터**

성프란치스코 성당과 협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영어 수업: 매주 월, 목 9:30am-12:30pm. 개강: 9/11  
컴퓨터수업: 9:30am-11am(기초)11:30am-1pm(중급)  
개강:9/27 **장소: 성당 교육관1B** 문의: [adultesl@fordham.edu](mailto:adultesl@fordham.edu)

**▶2024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요르단, 이스라엘  
인솔사제: 김가롤로 신부. 경비: \$3,700 예약금: \$1,000  
문의: 박 알버트 646-201-0175 선착순: 30명 마감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7/23	김진섭 야고보	백승민 안드레아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야네스	한서희데레사 양지수글라라
7/30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임지수 마리아	임지수 마리아	김영숙 카타리나	양지수글라라 최예준사도요한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c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7월 23일(오늘)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도좌 내사원은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3년 7월 23일)’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세계청년대회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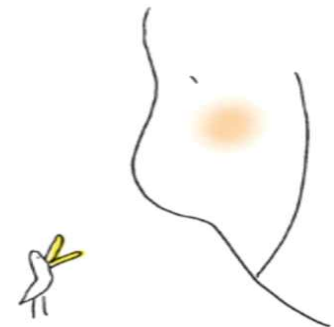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사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p><b>더큰집</b> TEL. 212-564-8238</p>	<p><b>HB HANBIT TOUR, INC.</b>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p>
<p><b>백승민</b>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p>	<p><b>CHA PHYSICAL THERAPY</b> 차 물리치료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p>
<p><b>마리아 투어</b>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p>	<p><b>Hair City Elegance</b>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p>
<p><b>Nest Seekers INTERNATIONAL</b>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p>	<p>이민/부동산 (아오스딩) <b>백이백 변호사</b>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p>
<p>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b>1205 WEST WINE &amp; LIQUOR</b>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p>	<p><b>WONJO</b> New Wonjo 212-695-5815</p>

**진정한 대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과 사랑이 담기면  
속삭여도,  
언어가 달라도,  
잘 들리거든요 ☺”

## 연령회원 소풍

맨하탄 본당 연령회 회원 50명은 7월 12일, 펜실베니아 랭케스터로 모세뮤지컬 관람차 다녀왔다. 웅장하고 디테일한 무대 공연은 압도적이고 감동적이었다. 말도 더듬고 부족함 많은 모세를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동역자를 붙이시어 쓰임 받는 장면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불러 세우시고, 당신의 사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돌아보게 하였다. 펜실베니아로 오가는 버스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아미쉬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성가 '주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묵주기도를 봉헌하였고 연령회원들과 서로 친교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피정같은 소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